



'취임 100일 기념' 기고문

농가주부모임과 함께 만들어갈 농업·농촌의 미래

박민숙 (사)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장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감사의 큰절을 올렸던 일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100일이라니... 그만큼 씬 없이 달려왔구나 싶다. 그런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며 또 한편으로는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장으로서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하며 지난 100일의 시간을 돌아본다.

농가주부모임 전남도연합회회장으로 6년을 보내고, 지난 3월 1일 전국연합회회장으로 첫발을 내딛으며 다짐했었다. '전국 861개 조직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43,981명의 회원들과 언제나 함께 해왔음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우리 회원들이 보여준 그 동안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지금의 농가주부모임이 있다. 이제 전국연합회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그 동안 함께 만들어온 기반 위에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갈 것이다.'는 다짐이었다.

내부적으로는 화합과 단결을 통해 내실을 기하고 외부적으로는 우리 회원 모두가 농촌 사회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의 기회를 만들어 단계를 더 도약하고 싶었다. 회원 감소라는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 경북도 연합회를 시작으로 우리 회원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소통하고자 했다. 귀 기울여 고충을 듣고, 방안 모색을 위해 밤새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일이 바로 우리 농가주부모임의 제도약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회장으로서 가장 큰 숙제는 그 동안 지속해 왔던 사업은 더 발전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내는 것이다.

농가주부모임 회원으로, 여성농업인으로,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로 농업과 농촌에 기여해 온 우리 농가주부모임에는 대표 사업이 몇 가지 있다.

가장 먼저 홀몸 어르신과 소외계층을 위한 밑반찬 나눔 사업인 '찬饌贊'을 꼽을 수 있다. 고령화로 나날이 증가 추세인 홀몸어르신과 소외계층을 위해 우리 회원들이 직접 만든 밑반찬을 나누는 사업이다. 영양 섭취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 이웃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 정말 보람있는 사업이었다.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며 말동무까지 되어드리니 홀몸어르신의 정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각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행하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 지난 2019년 이후 주기적인 재료의 대량 구입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은 물론 농가 소득 증대까지 이뤄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는 있다. 재료비 부족을 매우기 위해 농산물과 양념류는 기부하고 각 지역별로 공동소독사업까지 하고 있지만 고른 영양 섭취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구입해야 할 고기류나, 멸치 등의 재료 구입비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두 번째는 아는 만큼 누리는 여성농업인 정책 골든벨 '知彼知己면 나도 알 庶農'이다.

다양한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정보 수집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누적되어왔던 여성농업인의 정책 수혜 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실효성 있

는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을 널리 알려 정책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농업 현장에서의 체감도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더불어 여성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켜 직업적 자긍심까지 고취시켰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도 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은 여성농업인이 가장 잘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올해 7월이면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창립기념일을 맞아 제2회 본선대회를 개최하며 더불어 참가자의 정책 건의안도 함께 받는다. 우리를 위해 지속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농가주부모임의 대표 사업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세 번째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 '영농後 환경贊'이다.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제고하고, 방치와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해 기획한 사업이다. 본격적인 시행 이후 지난 3년간 올바른 배출방법 홍보로 재활용률을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수거보상금으로는 지역사회공헌활동도 해오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국가의 근간이 되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네 번째는 '희망드림봉사단' 운영이다.

태풍과 수해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복구 활동과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봉사 등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다. 올해 3월, 강원도 강릉 산불피해 현장에서는 산불로 인한 폐기물을 수거해 제때 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재민에게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고령어르신과 함께 온천여행을 하며 목욕봉사를 하고,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캠프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이렇듯 우리 농가주부모임의 희망드림봉사단은 농업과 농촌의 희망이 되고 있다.

다섯 번째 '새마을 농촌! 건강한 도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우리 농축산물을 슬로건으로 하는 홍보 캠페인이다.

국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등 향후 인구 구조 전망 속에서 지역 살리기의 대안이 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작년부터 집중해온 홍보 캠페인이다. 특히 전국의 축제 현장에서 지역을 찾은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의 다양한 활동은 고향사랑기부제 교육과 홍보를 위한 다큐멘터리의 일부로 쓰이기도 했다. 올해는 더 많은 농축산물이 고향사랑에 담겨 선물로 선정되고 또 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도 많다. 우리의 오랜 삶의 터전이었던 농업과 농촌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농업과 농촌에서 미래 세대인 청년농업인이 새로운 꿈을 키우고 도전할 수 있도록 기존 세대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적극 찾아내고자 한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할 멋진 미래를 꿈꿔본다.

기고

“강통전세를 조심합시다”

기고

변인석 강진경찰서 경무계 순경



전세사기에 대해 주목하고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강통전세라 불리는 전세사기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는 주거에 관련된 거래에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번 기투고에서는 강통전세와 전세사기에 대한 경고를 전하고자 합니다.

강통전세란 집주인이 가짜 전세금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사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강통 전세'라는 용어는 전세금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가짜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은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집을 대여하는 척하며 거짓 말을 하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강통전세로 인해 돈과 집을 잃게 되고, 꾸준한 주거 문제와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강통전세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통전세로 인해 전세금을 잃게 되면, 돈을 돌려받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집을 잃게 에 대한 불안감과 불안정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는 우리의 되어 주거생활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강통전세로 인한 주거 문제는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강통 전세 예방법으로는 신뢰 할 수 있는 중개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중개업체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므로, 전세 거래 시 중개업체와 함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의 신원과 집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계약서와 관련 문서를 잘 보관하세요. 합법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모든 사항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경험과 조언을 공유하여 강통전세와 관련된 사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유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통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거 거래 시 신중하게 접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지향해야 합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요로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기고

“도로교통법 제39조4항,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최관중 광양경찰서 경무계장경감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피하고 싶은 차량이 있다. 모래나 흙 등의 적재물을 도로 위에 흘리거나 대기 중에 휘날려 다른 차량에 모래를 뿌리는 차량,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위험하게 적재물을 적재한 화물 차량이다.

운전자들은 도로 위에서 이러한 적재 불량 차량 들을 만나게 되면 추월하거나 다른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 피해서 운행을 하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원인은 한가지 바로 도로교통법 제39조4항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심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찮아서, 적재물이 커서 등의 이유로 위반하는 화물



차량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의 경우 과태료나 처벌보다도 추락한 적재물로 발생되는 2차 사고의 위험이 크기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적재 불량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112신고 또는 위반 장면을 촬영하여 스마트국민제보 혹은 국민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 등 처벌을 통해 상습 위반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적재물 추락으로 인한 2차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모든 운전자들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적재물을 안전하게 적재하여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올바른 교통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